

국민이 함께 잘 사는 '포용 복지' 추진

복지부, 생계비·병원비·일자리·스마트복지 실현 등 역점
적정 덮고 일상 속에서 안심하며 행복한 삶 누릴 수 있게

보건복지부가 올해 생계비·병원비·일자리 걱정 감소, 국가의 돌봄 책임 강화, 국민의 건강한 삶 지원, 스마트복지 실현에 역점을 둔 방안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장=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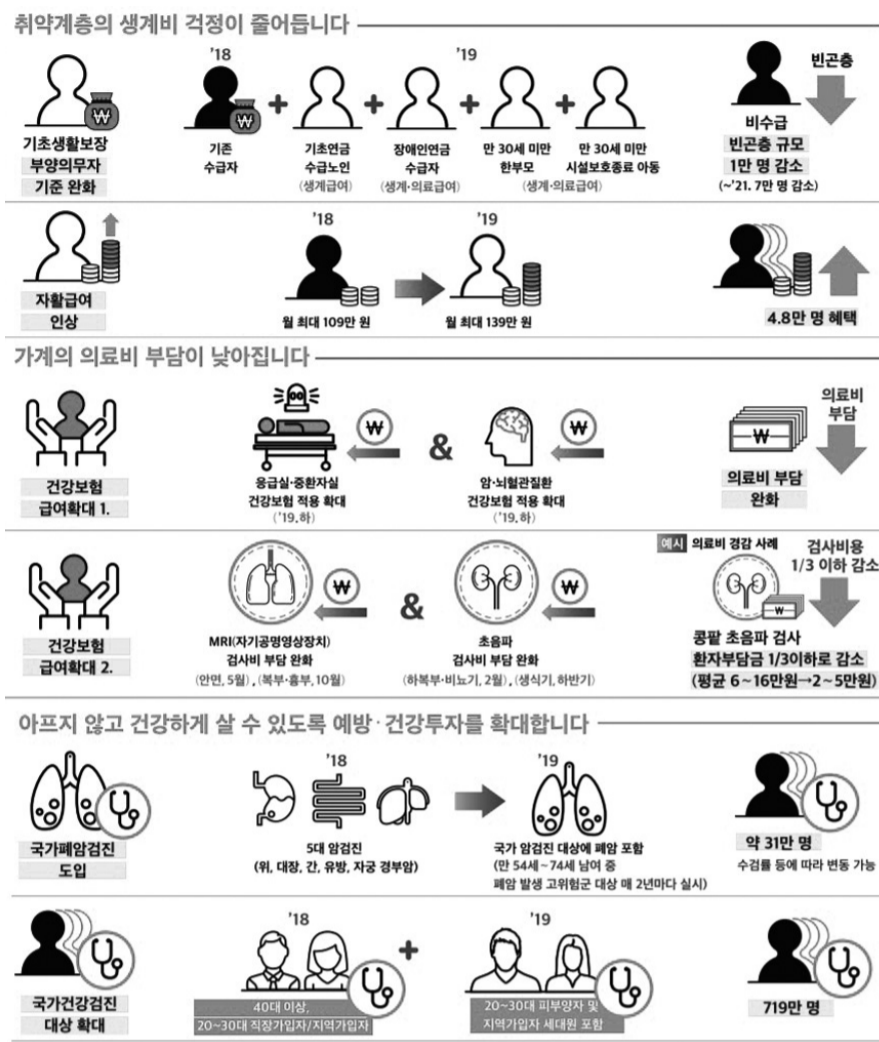
◇취약계층의 생계비 보장=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빈곤층이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했다가 아들이나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은 추가로 완화한다. 부양의무자가 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 생계급여만 해당),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에서 제외된다.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근로소득에서는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기초생활급여를 추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자활인가 인상(26.6%), 자활장려금 도입(소득공제 30%) 등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연령 기준을 확대(34→39세)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오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적용된다. 초음파는 2월 하복부·비뇨기 검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전립선·자궁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5만 병상) 등을 통해 병실료·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희귀질환 본인부담 완화 대상도 확대(827→927개)한다.

◇보건복지 일자리 확대=보육·돌봄·여가 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9만 5000명 늘리고 2022년까지 34만명을 고용을 추진한다. 방문건강관리와 의료 질·안전 제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분야에서도 올해 1만9000개를 예정이다.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 노인일자리 10만개 추가로 만들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치매전담형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한다.

◇20~30대 건강검진 범위 확대= 복지부는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는 719만명으로 오는 7월부터는 국가폐암검진을 도입해 31만명에게 검진 혜택을 주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범사업을 통해 2만7000명의 건강검진을 돕는다. 필수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할 보건의로 인력을 양성을 위해 국립공공



보건의로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도 시작한다. 복지 회원제(가칭) 시스템은 복지

수요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알려주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서구청, 심폐소생술 교육 최근 광주시 서구청 민방위 안전체험센터에서 서구청 가로환경관리원 56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 <서구 제공>

광주 남구, '행복한 건강밥상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남구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질환을 예방위해 '행복한 건강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한 건강밥상 첫 번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김영숙 영양사가 강사로 나서며, 그는

이날 비만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닭부단호박 조림과 단호박 스프 조리법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운동과 식이요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남구 관계자는 "행복한 건강밥상 프로그

램은 주민들에게 비만과 당뇨 등 각개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와 조리법 등을 제공해 건강한 밥상이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등근세상만들기-우주과학진로캠프'

광주북구청청소년수련관, 고흥청소년우주센터서 진행

광주북구청청소년수련관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에서 '등근세상만들기-우주과학진로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우주과학 현상의 기본원리와 관련 체험으로 4차 산업시대 우주과학에 대한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초등학교 4~6학년으로 이뤄진 푸른꿈동이 학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2박3일 동안 진행된 진로캠프에서는 우주인 훈련장비체험을 비롯해 폼켓 제작, 전체관측, GPS오리엔티어링, 특정좌표에 발

사체 안착 등 우주과학과 관련한 체험활동이 운영됐다. 이와 함께 우주인훈련장비체험이 진행돼 비행조정시뮬레이터와 종려체험 등 실제 우주인처럼 체험장비를 탑승하는 체험도 이뤄져 청소년들의 잠재력 있는 과학적 역량을 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태욱(12·문운초5학년)군 "평소 접하지 못했던 우주인체험활동과 전체관측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주과학이 어렵다고 보

다는 흥미롭게 느꼈다"며 "장래희망이 없었는데 이번 캠프를 통해 미래의 우주과학자가 되는 꿈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서부소방 '한국 119소년단' 모집

다음달 5일까지 접수

광주서부소방은 "다음달 5일까지 서구 내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119소년단'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 119소년단은 지난 1963년 창단돼 안전문화 정착 및 차세대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건강한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목표로 마련, 운영되고 있다.

가입된 학생과 지도교사는 입단식을 시작으로 지도교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전문화 탐방 및 안전교육, 119소방 안전 체험 캠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지도교사 소방안전 연수과정을 비롯해 119소방 동요대회·119안전뉴스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아울러 우수활동 지도교사와 단원에 대해서는 포상이 수여된다. 서부소방은 지난해 4개 대 105명의 단원이 활동했으며, 지난해 광주소방 동요 경연대회에 빛을유치원과 서초등학교가 참가해 각각 유치부 금상과 초등부 은상을 수상했다.

119소년단 활동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는 광주서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생활안전과 (062-613-8582)로 연락하면 된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가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습성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해당심층기종미네랄
이온, 실크이노산,
완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